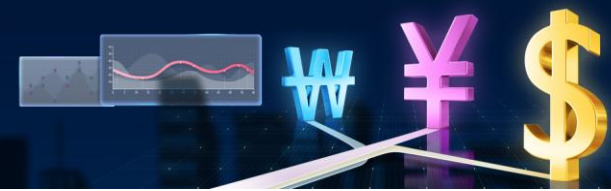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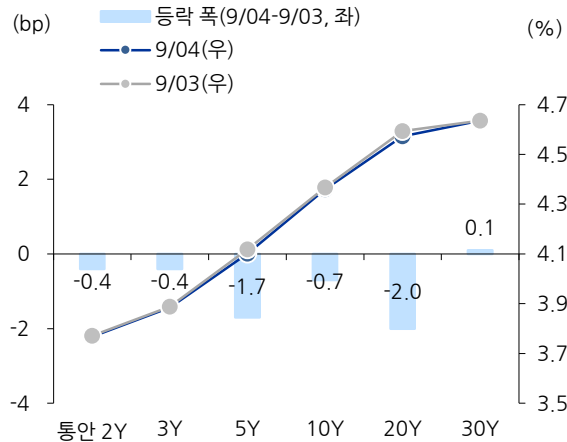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FX 차영후_02)368-6138_yhcha@eugenefn.com

Fixed Income

(단위: %,bp, 톱)

		9/4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884%	-0.4	9.6	93.1
	한국 국고채 10년물	4.360%	-0.7	7.6	97.5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47.6	47.9	49.6	43.2
해외 채권	3년 국채 선물(KTB)	103.17	3.0	-17.0	-227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05.44	24.0	-31.0	-748.0
	미국채 2년물	4.367%	2.8	2.1	89.5
	미국채 10년물	4.783%	1.5	6.3	61.5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41.6	43.0	37.5	69.6
	독일국채 10년물	3.349%	-0.5	5.8	49.4
	호주국채 10년물	5.150%	-0.5	6.9	39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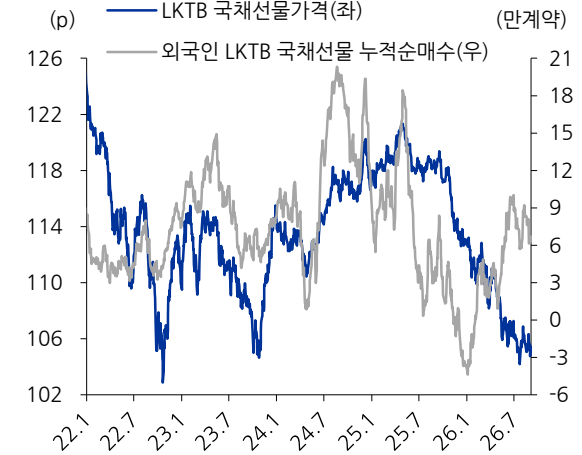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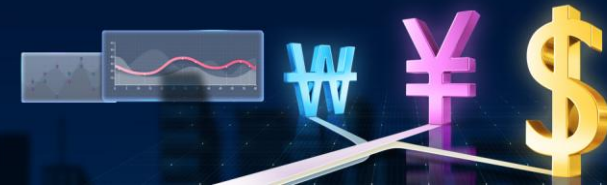
- 국내 채권시장 강보합 마감. 특별한 국내 요인 없는 가운데 대외 요인에 연동.
- 간밤 월러 연준 이사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금리 하락 출발. 최근 상승세가 가파르던 일본 금리가 하락 전환한 것도 영향.
- 이후 주말 예정된 미국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금리 등락 제한. 외국인의 3년 국채선물 순매도에 금리 하락폭 대부분 반납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베어 플래트닝. 고용 호조 후 9월 인상 가능성 확대된 영향.
- 미국 8월 비농업고용, 전월대비 16.2만명 증가하며 예상치의 3배로 서프라이즈 발표. 직전 두달치도 5.5만명 상향되며 고용 개선을 확인. 실업률 전월과 동일.
- 고용 발표 직후 2년 금리 급등했으나 11일 CPI 발표를 두고 봐야한다는 인식과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금리 언급에 금리 상승폭 일부 축소 마감.

자료 출처: 연한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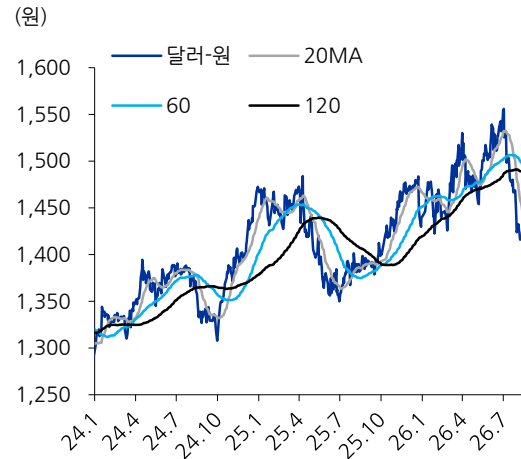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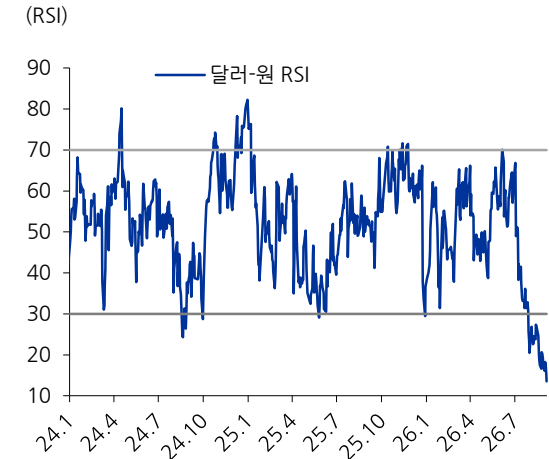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	9/4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50.40	-0.7%	-1.6%	-6.2%
	달러지수	99.16	0.2%	-0.5%	0.9%
	달러/유로	1.16	-0.1%	0.3%	-1.1%
	위안/달러(역외)	6.71	-0.1%	-0.3%	-3.9%
	엔/달러	156.23	0.3%	-2.4%	-0.3%
	달러/파운드	1.35	-0.1%	-0.1%	0.4%
	헤알/달러	5.13	0.5%	-1.5%	-7.0%
상품	WTI 근월물(\$)	91.48	0.2%	9.7%	59.3%
	금 현물(\$)	4,430.64	-1.0%	-0.5%	2.6%
	비트코인(\$)	79,920	-2.6%	1.1%	-9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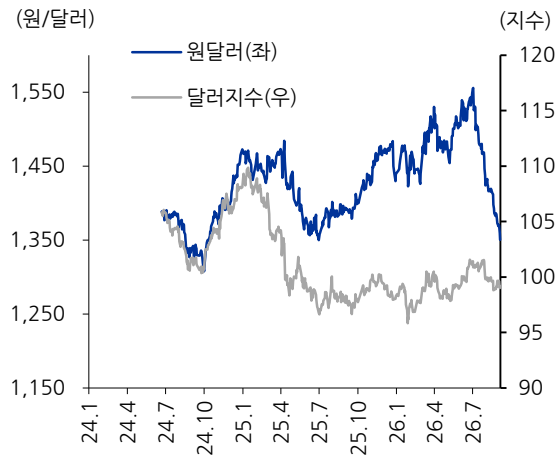
달러 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 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월러 이사 비둘기파적 발언 이후 달러 약세에 -8.90원 낮은 1,350.40원 마감(야간 1,350.10원).
- 월러 연준 이사는 9/3일, 지표에서 일부 디스인플레이션 신호를 보고 있으며,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금리 동결을 지지할 것이라고 발언. 이에 9월 연준 인상 가능성 하락하며 달러는 하락, 원화 강세를 지지.
- 달러-원은 달러-엔 레이트체크 가능성 제기되며 주간 -22.1원 하락. SK하이닉스 ADR 상장 전후 환전 증가 기대 이어지며 7/2일 고점 대비 -205원(-13.2%) 급락.
- 美 8월 고용이 예상을 크게 상회했음에도 원달러 환율에 영향은 크지 않았음(야간 -0.30원). 단기 급락에 따른 되돌림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, 수출기업 환전 수요 고려하면 내년까지 1,400원을 크게 상회하는 환율이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美 8월 고용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며 상승(DXY +0.2%).
- 美 8월 비농업고용은 +16.2만명 증가해 시장 예상(+5.6만명)을 10만명 가량 상회. 6~7월 합산 수치도 +5.5만명 상향 조정됨. 경제활동참가율 61.6% (+0.2%p), 실업률은 4.1% 기록하며 고용시장 전반의 견조함 확인.
- 다만 서프라이즈 대비 달러 강세폭은 크지 않았고, 美 국채금리 상승폭도 발표 직후 대비 축소됨. 현재 시장의 관심이 물가에 집중된 만큼 美 8월 물가지표 발표(PPI 9/10일, CPI 9/11일) 전 신중한 모습.